



정부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매우 낮은 가산금리(+9bp, 3년물)로 성공적 발행

- 5년물(+12bp)은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다시 경신-
 -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와 함께
 - 우리의 외화 조달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실하게 증명 -

정부는 2.5일(목), 3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불과 5년 만기 20억불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되었다.

만기	규모	발행금리 ¹⁾	표면금리 ²⁾
3년	10억불	美 국채금리(3년물) + 9bp = 3.683%	3.625%
5년	20억불	美 국채금리(5년물) + 12bp = 3.915%	3.875%

1) 발행금리 : 해당 통화 동일 만기 지표금리 + 가산금리

2) 표면금리 : 채권 소지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리(달러화 채권은 통상 0.125% 단위로 결정)

이번 외평채 발행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 9bp)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대비 10bp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선진국 정부·기관에 비해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물(한국 기관의 외화채) 채권 시장에서도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금년중 발행한 주요 기관의 가산금리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12bp(3년물),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14.6bp(3년물), 유럽투자은행(EIB) +8.1bp(5년물), 캐나다 연금(CPPIB) +16.5bp(5년물), 일본 정책금융기관(JBIC) +21bp(5년물)

또한, 5년물의 경우, 최근 발행했던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재차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와 평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달러 표시 외평채 최저 가산금리 추이(5년물 기준, 美 국채금리(5년물) 대비)
: ('19년)+30bp → ('24년)+24bp → ('25.10월)+17bp → (금번 발행)+12bp

※ 달러 표시 외평채 3년물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행

둘째, 지정학적 긴장 고조, 관세 문제 부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 등 대외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대폭 확충하였다. 금번 발행 규모(30억불)는 단일 발행 기준으로 '09년(30억불) 이후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금년 9월(330억엔, '23년 발행) 및 10월(7억유로, '21년 발행)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에 대한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하게 되었다.

셋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발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발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작년말부터 금번 외평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콜, 1:1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 등 전통적인 제조업 경쟁력 뿐만 아니라 K-컬처 등 소프트파워, AI 경쟁력, 코스피 등 자본시장 활성화, WGBI 편입 등 달라진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며칠 사이 미국의 예산안 합의, 미국-이란 간 협상 가능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완화된 사이에 전격적으로 발행을 추진하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넷째, '24년 달러화 외평채, '25년 유로화 및 달러화 외평채에 이어 금번에도 에스에스에이(SSA) 방식*으로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선진 채권 발행 방식을 정착시키고 우량 채권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었다.

* SSA(Sovereign, Supranationals & Agencies) : 각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칭하며, 세계 채권시장에서 우량투자자로 평가

*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①SSA 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때에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목표 금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안정적 투자를 중시하는 ②SSA 투자자가 선호 → 주된 ①발행자/②투자자 모두 SSA인 특성

마지막으로, 국내기업·금융기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외투자 목적 등으로 외화를 조달하고자 하는 국내기관들의 경우, 금번 외평채의 역대 최저 가산금리 등을 기준으로 삼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최근 10년간 외화 외평채 발행 내역

발행시점	통화/만기	금액	발행시점	통화/만기	금액
'17년	USD 10년(+55bp)	10억달러	'23년	JPY 3년(+23bp)	330억엔
'18년	USD 10년(+60bp)	5억달러		JPY 5년(+33bp)	235억엔
	USD 30년(+85bp)	5억달러		JPY 7년(+43bp)	70억엔
'19년	USD 5년(+30bp)	5억달러	'24년	JPY 10년(+48bp)	65억엔
	USD 10년(+55bp)	10억달러		USD 5년(+24bp)	10억달러
'20년	USD 10년(+50bp)	6.25억달러	'25년	AUD 5년(+55bp)	4.5억호주달러
	EUR 5년(+35bp)	7억유로		EUR 3년(+25bp)	7억유로
'21년	USD 10년(+25bp)	5억달러		EUR 7년(+52bp)	7억유로
	EUR 5년(+13bp)	7억유로		USD 5년(+17bp)	10억달러
				JPY 2년(+16bp)	70억엔
				JPY 3년(+20bp)	430억엔
				JPY 5.25년(+30bp)	300억엔
			JPY 10년(+46bp)	300억엔	

* 괄호 안은 통화 별로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벤치마크) 대비 외평채 가산금리
 ↳ 벤치마크 금리 : (달러)美 국채금리, (유로)유로 미드스왑, (엔)TONA 미드스왑, (호주달러)호주스왑금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윤 (lty703@korea.kr)

